

"코로나가 드러낸 한국 교회의 민낯, 정직하게 마주하고 아프게 성찰하다."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연속토론회 시즌1

2021년 4월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기윤실 유튜브 생중계

- 2주차 -

교회를 삼킨 이념

장동민 교수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기윤실 이사)

코로나 시대 한국 기독교와 이념

일반적으로 현재 보수/진보 양대 이념의 주류를 이루는 정파들의 시작을 1990년 '삼당합당'으로 보고 있다.¹⁾ 약 30여 년 동안 얹치락뒤치락 정권교체를 거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정치세력들이다. 두 이념의 대립은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보수와 진보로 양분하였다.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으며,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 일상화되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다. 삼당합당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가 결성되었는데, 처음에는 보수적 정치참여보다는 복음주의 교회의 대정부 창구 역할을 위한 목적이었다. 보수적 한기총의 창립으로 한국 교회도 본격적으로 진보적 기독교 연합기구인 한국교회협의회(NCCK)와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한국 기독교의 보수/진보 대립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이다. 7,80년대만 해도 '보수' 혹은 '진보'라는 단어 대신 '에큐메니칼'과 '정통주의'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둘러싼 대립은 1950년대 말부터 지속된 것으로서, 주로 기독교 내부의

1) 박세길, 『두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진보 vs 보수 향후 30년의 조건』 (파주: 추수밭, 2018), 제1장

신학적 이슈 중심의 대립이었다. 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의 무오성과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등 초자연적 구원을 중요시하는 반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성경비평을 인정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였다. 정치적으로는 전쟁 직후인지라 양측 모두 강한 반공주의를 표방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양측은 민주화운동이나 '산업선교' 등 정치적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하였으나,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았다. 정통주의자들은 정교분리를 이유로 정치 문제에 참여하기를 꺼려하였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2002년 참여정부의 출현과 더불어 한국교회 내의 신학적 보수/진보 대립이 정치적 보수/진보 대립과 맞물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2000년대 초반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시민운동 형식으로 시작된 보수적 기독교의 정치 참여가 점차 확대, 심화되었다. 2003년 3월 1일, 뉴라이트 단체들이 주최하고 수만 명이 참여한 "반핵반김 자유통일 삼일절국민대회"에서,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며, 사립학교법을 반대하였다. 신학적 보수와 정치적 보수가 맞물린 기독교 보수주의가 전면에 등장한 최초의 집회였다. 이 대회를 시점으로, 기독교와 태극기 그리고 가끔씩 성조기도 함께 등장하는 소위 태극기집회가 시작되었다.

'뉴라이트'는 2007년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해 졌다. 그러나 보수적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각 교단과 기독교 단체들을 통하여 더욱 확대되어 갔다. 한기총 등 기독교 단체들이 중심축을 이루는 태극기 집회, 선거 때마다 이름을 달리하며 등장하는 기독교 정당들, 박근혜 정권 말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매년 8.15에 반복되는 건국절 논쟁 등에서, 뉴라이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보수적 기독교는 동성애, 이슬람, 세월호, 촛불혁명, 검찰개혁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개입하여 보수적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202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코로나19 시대는 한국교회가 이념적으로 우(右) 편향되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더욱 고착되는 시기였다. 마침 4.15 총선과 시기적으로 일치하여 보수적 기독교와 보수적 정당이 연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2020 총선이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친미냐 친중이냐 등 대한민국의 체제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라 하여, 반공주의 정서를 자극하였다.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전광훈목사가 있었다. 정치에서 방역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 극우적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방역에 불만을 품고 비상식적 행동을 하였고, 그 결과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들이 발생하였다. 급기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발 대유행의 진원지가 되었다. 방역당국은 기독교 집회를 철저히 봉쇄하였고, 진보적 언론에서는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라는 식의 대대적 보도가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회주의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코로나를 이용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졌다. 기독교는 국민적 지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그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태극기 집회의 선봉에 서게 되었나? - 역사적 고찰

7,80년대는 기독교가 지성인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의 주요 사회적 의제는 '민주화'였는데, 민주화 운동에서 기독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는 비난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당시 교회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치 문제에는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반복할 뿐이었다.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순종해야 한다는 로마서 13장 1절~7절 말씀을 금과옥조로 여기면서 말이다. 그러던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반정부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나? 오랜 세월 정교분리 원칙을 고수하던 한국교회가 어떻게 적극적인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원래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전광훈)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렀는가?

한국 기독교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거칠지만 다음과 같이 3막으로 구분해 보자.²⁾ 제1막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초창기 한국기독교로서, 외래종교인 기독교가 한국 토양에 정착한 시기다. 이 시기의 교회는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은 물론, 반봉건·반외세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장서 이끌었다. 선교사들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근대식 학교가 세워졌고, 제중원을 비롯한 병원을 통하여 근대 의학이 도입되었다. 신분제 철폐와 천민 해방에 기독교가 큰 도움을 주었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도 기독교가 선봉에 섰다. 3.1만세운동에서 기독교인이 주도적 세력의 하나였고, 20,30년대에도 의열단 운동을 비롯한 항일무장투쟁, 농촌운동, 저항문학 등에서 기독교인이 대거 참여하였다. 당시 기독교는 외래종교이고 교인의 숫자도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모순으로 가득한 세계사의 핵심과 맞부딪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막은 해방 후부터 80년대 민주화시대까지로서, 한 마디로 한국 기독교의 전성기다. 30년에 걸쳐 교인 수가 30배로 늘어났고,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교회들이 설립되었으며, 백만 명 이상이 모인 여러 차례의 대형 집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한국 기독교는 비록 친일청산에서는 실패하였으나 반공과 산업화라는 국가적 어젠다의 기수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독교의 표식인 십자가와, 반공과 산업화를 상징하는 태극기, 그리고 이들의 수호자 성조기의 조합이 이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필자는 이 시기를 '유사(類似) 크리스텐덤'이라고 이름 붙인 바 있다. 우리나라가 크리스텐덤(기독교 국가)이었던 적은 없었으나, 해방 후부터 약 3,40년 동안 기독교는 한국사회에서 크리스텐덤 못지않은 특혜를 받으며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제3막은 민주화를 달성한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다. 기독교의 성장이 둔화되고 세력이 약화되었음은 물론, 이때부터 기독교는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로부터

2) 한국 기독교 역사의 구분에 관하여서는, 장동민,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제2장을 보라.

멀어져서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하였다. 제2막에서의 기독교의 번성을 가져다 준 요인들이 오히려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의 해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공주의가 퇴조하였고, 한국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의 문제점으로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기독교는 기업과 자본가의 입장에만 섰다. 사회는 다원화되어 가는데 전통적인 가치와 윤리를 고집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개신교 기독교인과 지도자들은 신학적 보수와 정치적 보수가 결합된, 이른바 '보수주의'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기독교는 과거 호시절, 반공-시장경제-한미동맹이라는 정치이념과 동일시되어 큰 부흥을 이루었기에, 그 영광을 놓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치이념을 상상하는 대신,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 전광훈을 따르는 어르신 성도들은 과거 국가의 수호자요 산업화의 역군이었는데, 그 영광과 명성을 부정당한 채,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외로운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현재 집권세력은 반공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이요, 기독교의 박해자들이다. 그들의 좌절과 분노가 전광훈의 에너지원이다.

전광훈은 단지 독특한 캐릭터를 지닌 정치 선동가 정도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보수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전광훈은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이고, 그 영향력은 동심원을 그리며 한국교회 내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 중심에 가까울수록 인맥과 사상이 촘촘하고 멀어질수록 성기지만, 그 범위는 한국의 보수적 교회를 망라한다.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전광훈이 대표로 활동하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설립한(1989년) 분은 영락교회 고(故) 한경직목사인데, 그가 바로 미군정과 한국전쟁 시기 반공운동의 선봉에 섰던 '서북청년단'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 보수적 한국교회와 전광훈이 역사적으로 서로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손절(損切)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교회의 주류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쓸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의 미래에 미치는 악영향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념과 완전히 결별하고 오직 신앙만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기독교 신앙과 이념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기독교 신앙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이념과 그 이념을 구현한 정치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의 염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인데, 그 방식이 바로 기독교가 정치이념을 하위개념으로 두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이 소용돌이치는 민족사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하려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가장 하나님의 뜻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이념과

정파들을 선택하여 손을 잡았다. 구한말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었을 때 기독교는 개화파와 같은 길을 걸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와 함께 전파된 서양의 문명과 정신을 수용함으로써 기독교의 정의와 평등의 정신을 구현하려 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삼일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의 기반에는 민족주의와 융합한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바로 이 정치이념과 결합하여 '기독교민족주의'라는 독특한 사상을 낳았다.

해방 후에도 기독교는 이념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북한에서는 조만식이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여(1945년 11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정치를 하려 하였고,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기독교 입국론(立國論)을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국가주도의 산업화와 반공주의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정교분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정치이념(반공주의·시장경제·친미)이 군사정권의 노선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기독교는 진보정치의 지분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 민주화 시절, 많은 진보적 기독교인들과 천주교 사제와 평신도들이, 인권 운동, 노동조합 운동, 통일운동에 앞장섰다. 정의로운 세상, 가난한 사람과 소수자도 차별 받지 않는 사회, 부가 대물림되지 않는 경제제도, 평화를 지향하는 정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에너지 정책 등이 성경에 기초한 진보적 가치다.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펼치기 위하여 정치적 이념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이념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지금의 보수적 교회처럼 신앙과 이념을 동일시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도, 한국사회를 위하여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선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해 보자. TV 뉴스나 신문을 보면 개신교인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그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전광훈목사와 같은 극우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계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개신교인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 31.4%, 중도 39.8%, 보수 28.8%로 나타났다.³⁾ 또 다른 조사에서는 전광훈목사의 연행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개신교인 비율이 13%인데(적극적인 지지 3%, 연행은 지나치지만 주장에는 동의하는 비율 10%), 이를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이 57%, 또한 직분별로는 안수집사, 장로, 목사 등 중직자의 23%가 전광훈에 찬동한다.⁴⁾ 이상을 종합하면

3) 2017년의 조사에서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국민 가운데 33.2%(중도 34.7%, 보수 26.5%)인데 기독교(개신교)인은 40.9%가 스스로를 진보(중도 23.1%, 보수 30.0%)라고 생각한다. 가톨릭이나 불교는 물론 무종교인보다도 진보의 비율이 높다. 이 조사에서도 역시 나이와 직분이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2017년 1월의 통계 자료. 조성돈, “종교별 신앙심과 이념성향”, 기윤실 홈페이지, <https://cemk.org/10938> 참조)

기독교인의 이념지형은 일반 국민의 정치지형과 비슷하거나 진보층이 약간 많고, 고연령층이나 교회의 지도자층은(이 둘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매스컴을 통하여 느껴지는 것보다는 개신교인 가운데 진보층이 두텁다.

이러한 교회 내 이념 분포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교회 안에 보수, 중도, 진보가 고루 존재하기 때문에 교인들 간의 이념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대다수의 교회에서 목회자를 비롯한 주류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지 못하는 샤이 진보의 숫자가 상당하다. 이들은 신앙과 보수적 이념을 일치시키는 목사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예 설교 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도 모른다.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서도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 분위기다. 어쩌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눈치를 숙 보며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나 확인한다. 주로 강성 보수파가 세계 이야기하고, 샤이 진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듣고 있다. 더 나쁜 경우는 어떤 교회는 보수적인 사람들만 그득하고 어떤 교회는 진보적인 사람들만 모인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던 사회적 장벽을 초월하려 하였던 신약 교회의 이상에 비추어볼 때, 교회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상대를 저주한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기에는 진보와 보수의 골이 너무 깊다. 이렇게 교회는 신약의 이상으로부터, 그 본질적 가치로부터 멀어져 간다.

둘째, 이념적 갈등을 견디다 못하여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상당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기독교가 한 쪽의 정치적 성향과 정확히 일치하게 될 때, 반대쪽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의식 있는 노동자들이 보수적인 교회에서의 설교를 참아낼 수 있겠는가? 나이가 젊을수록 진보적 성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념적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역시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더욱이 교회 세습, 후계 다툼, 법정 투쟁 등의 흉한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더욱 급속도로 교회를 이탈한다. 이런 교회의 스캔들은 젊은이들이 보기에 근대 자본주의적 가치와 전근대적인 관습이 결합되어 나타난 괴이한 현상이다. 후기 근대적 가치를 지향하는 젊은이들에게 보수적 이념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은 추문은, 전통적 기독교마저 혐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기독교 신앙과 이념의 융합은 교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4)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제21호, 목회데이터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67&page=4

미친다. 세 가지로 살펴보자. 첫째, 이념과 정치제도를 비판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진다. 기독교 신앙의 장점은 이 세상의 모든 이념과 제도와 정치세력을 상대적으로 보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 세계를 초월하신 절대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전적 타자(他者)이시다. 기독교는 현실 정치가 기독교로부터 제공 받은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기성 정치로 제도화되면서 권력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내부적 타락이 있지 않은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또한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신앙이 이념과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이념을 비판하기 어렵다. 비판 받지 않은 이념, 기독교 신앙과 밀착된 이념은 자칫 가장 악한 체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모든 권력은 타락하고 그 권력이 절대적일수록 절대적으로 타락하는 법인데, 신앙과 정치를 결합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전체주의 체제가 순수하게 유지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 체제가 무서운 것은 절대적 무오류를 주장하면서 종교적 헌신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신앙과 이념을 결합시킨 목사들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는 것을 목격하였다. 방역을 방해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혀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들의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 기독교 신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치 이념을 상상하고 제공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 진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산업의 발전에 따라 혹은 사회적 위기를 맞음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를 요구한다. 시대의 변화에 둔감한 사람은 과거의 질서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는 최악의 일종이다.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다는 것은 그 변화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구시대의 기득권에 안주하며 최악의 낙을 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를 알면서도 이를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자라면, 또한 늘 고통당하는 자들의 자리에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왜곡된 구조를 개혁함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꿈을 꾸기 마련이다.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더욱 어려운 현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분열과 갈등, 민족주의적 고립의 심화, 기후위기 등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이 모든 문제들에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아니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길만이 올바른 길이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동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철 지난 이념과 기독교 신앙을 동일시함으로 새로운 정치이념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대에 역행하는 반동 세력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만일 한국 기독교가 지금과 같이 과거 이념에 매몰되어 미래의 문제에 눈 감는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으란 말인가.

셋째, 한 사회가 극단의 이념대결을 벌일 때, 기독교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봄으로써, 각 이념들을 상대화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기독교는 이념에 의하여 왜곡되고 기울어진 공론장(公論場, public sphere)을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감능력과 객관성과 호의를 가지고 있으며, 내 입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는 지혜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이념 간 중재 조정 역할은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을 뿐, 현재 한국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편향된 이념과 기독교가 동일시되어 국론 분열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 사회 통합의 방해물이 된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수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현세보다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가치들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이다.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대명사가 되었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데 그악스럽게 기득권을 수호하며, 이 땅의 제국을 금세 시들어버릴 풀꽃으로 여겨야 하건만 사대(事大)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낙관적 전망이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검찰개혁과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에 대하여 걱정하기 시작하였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카르텔이 무척 공고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깨어 있는 시민들에 의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큰 틀에서의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겠으나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 세력이 집권함으로 결국 역사적으로 올바른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비관적 전망도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경제가 다시 제자리를 잡고 사회가 안정되더라도, 이미 반으로 분열된 보수와 진보 세력이 더욱 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다. 야당은 (그게 어느 정당이든지) 작은 문제를 키우고 없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정권교체를 추구하고, 여당은 강성 지지자들에 떠밀려 강대강 대응을 함으로 분열이 심화되는 것이다. 마침내는 내부적 결속을 위하여 외부(북한, 일본, 중국 등 외부의 적은 널려 있다.)에 적을 만들고 타 문명과의 대결로 나아간다.

두 길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념 대결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사태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다. 어느 한 이념, 어느 한 정파를 진리로 알고 다른 쪽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는,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대결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기 위하여서는 정치와 이념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우리 삶의 여러 국면, 여러 영역을 고루 봄으로써 정치에 제 자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정치 과잉의 사회다. 정치의 한계를 알게 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 기독교가 사회를 위하여 해야 할 봉사다. 기신

‘욕하는 기독교’와 전광훈 사태

- ‘정치적 선악과’와 기독교의 정치적 탈선⁵⁾

이병주 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대표, 기윤실 감사)

1. ‘조국 사태’와 ‘전광훈 사태’,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4.15 총선’ 및 ‘4. 7. 보궐선거’

가. 한 사람의 인생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가끔은 조금 평안하다 싶은 시기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도 잠깐, 두세 달 이상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어째 살~만하다 싶으면, 갑자기 직장이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요. 몸이 편안하다 싶으면, 갑자기 내가 아프거나 가족 중에 크게 아픈 사람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왠지 편하다 싶으면, 갑자기 누군가와 살짝 다투거나 거칠게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하여간, 우리들 대부분의 인생은 ‘스펙터클’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드니까, 우리는 뻔뻔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시편 42:11).

나. 한 사회의 움직임도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게 더 심합니다. 세월호 사건(2016년)과 탄핵 사태(2017년)로 한 시기가 지나가나 싶더니, 그 뒤로 북핵 사태(2018년)와 남·북·미 정상회담(2018-2019년)의 질풍노도가 왔다가 지나가나 싶더니, 갑자기 조국 사태라는 일진광풍이 휘몰아쳐서 몇 달 동안 전 사회가 엄청난 싸움의 태풍에 휘말렸습니다(2019년 후반). ‘이 놈이 나쁜 놈이냐? 저 놈이 나쁜 놈이냐?’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법적인 심판을 둘러싸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고, 친구들이 갈라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형이 동생이 갈라져 분쟁하고(마태복음 10:35), 교회에서 서로 웃고 지내던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과 목사님도 갈라졌습니다. (‘조국 사태’)

다. ‘심판하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뒤엉켜서 전 국민이 모두 심판하는 자가 되고 심판받는 자가 되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외치고 욕하던 몇 달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기억하시지요? 이 와중에 기독교인들 중의 상당수가 뛰어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권

5) 이 글은 2020. 4. 15. 국회의원 총선에 앞서서 필자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웹진 ‘좋은나무’에 게재한 칼럼 ‘[십계명으로 읽는 세상①] 제6계명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기초로 해서, 필자의 책 『욕하는 기독교, 욕 먹는 기독교 -평신도의 발견 개정증보판』(대장간) 제1부 제2장으로 게재한 글을 본 토론회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내용입니다.



심판의 주도세력을 형성하는 정치와 신앙의 대융합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전광훈 사태')

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격동한 상태에서, 특히 박근혜 탄핵사태로 인하여 2-3년간 억눌리고 축적되었던 보수의 정치적 에너지가 조국 사태를 통하여 분출했습니다. 그 결과, 태극기로 대표되던 정치적 극우세력과 온건 보수주의가 혼합되는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극우적 기독교인이던 전광훈 목사가 때마침 (이미 세력이 크게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한기총 회장'이라는 교단연합단체 대표 타이틀을 달고 나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광화문 집회에 대거 동원하면서, 극우와 정치적 보수, 정치적 보수와 신앙적 보수, 정당과 교회가 동맹하고 융합한 광화문 정치집회의 메인 스피커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랫동안 '비정치적 기독교', '경건주의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온건, 중도,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던 한국교회 주류의 많은 현직 및 원로 목사들까지도 전광훈 목사의 뒤로 결집해서 그를 신앙적으로 지지하면서 전광훈 목사의 극단적 정치활동에 찬송가로 화답하면서, '욕하는 기독교'가 크게 세력을 얻고 확산되었습니다. ('욕하는 기독교')

마. 조국 사태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2020년). 코로나 사태는 한 두 달 만에 한국은 물론 전세계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코로나 사태에 대한 평가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별 의미가 없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사태의 전면적 위협에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양자 간의 협력을 강요하는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바. 2020. 4. 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엄청난 정치적 열정과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사건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상당히 눌러 있었지만, 선거일에 임박할수록 투표에 대한 정치적 열정과 분노와 에너지는 다시 결집되고 표출되었습니다. 한쪽 편의 시민과 기독교인들에게는 즐거운 결과가, 다른쪽 편의 시민과 기독교인들에게는 괴로운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정치는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에게, 정치적 보수와 정치적 진보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로 하여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기되는 진지한 질문들입니다. ('4·15 총선거')

사. 2020. 8. 15. 구속기소되었다가 병보석 중이던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정치적 극우세력과 함께 개최한 광화문 집회가 잠잠했던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재확산시키는 위기의 진앙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위험을 공공연히 부인하면서 8·15

대중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욕하는 기독교'의 위력을 보여주려고 했던 전광훈 목사는 그 자신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하고 '보수의 영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전락하는 극적인 사태가 전개되었습니다. ('욕하는 기독교'의 추락)

아. 2021년 4월 7일 진행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보궐선거의 원인제공 경위 및 최근의 부동산 위기 등의 영향으로 민주당 후보가 크게 패배를 하고 보수정당이 승리하는 정치적 흐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통한 공화제 헌법 하에서는 당연히 보수와 진보, 다양한 정파 간에 선거에서의 승패가 교차되는 일이 당연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사건이 극우 기독교의 정치적 탈선을 다시 격화시킬지 아니면 기독교의 정치적 탈선을 완화시킬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정치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두 가지 눈 ① - '선악과의 눈'

가. 정치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선악과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제6계명의 눈'입니다. '선악과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정치는 분쟁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보수주의자에게는 보수주의가 선이고 진보주의가 악이며, 정치적인 진보주의자에게는 진보주의가 선이고 보수주의가 악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의 신앙이 더해져서 하나님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중 한 쪽만 지지하고 다른 쪽은 반대하시는 것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인의 신앙적 정치관은 더욱 험악해집니다. 절반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보주의를 박멸하자고 기도하고, 다른 절반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수주의를 배척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땅의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 가지려고 하면(열왕기상 3:25),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괴로워지십니다. ('선악과의 눈')

나.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창세기 2:17)은 의미심장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심판하려고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심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 사람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심판하려고 들면 세상과 사람이 모두 치명적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랑스러워서(창세기 3:6),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어합니다. 선악과의 열매는 죽음과 고통입니다(창세기 2:17, 3:16-19). ('선악과의 죄')

다. 개인적 선악과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개인적 교만과 위선의 죄를

낱습니다.⁶⁾ 정치적 선악과는 다른 집단을 심판하고 제거하고 싶은 집단적 폭력성의 죄를 낱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선악과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게 되면, 나와 이익과 생각이 같은 '우리'들만 정치적으로 선한 자,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세우고, 나와 이익과 생각이 다른 '그들'은 정치적으로 악한 자로 심판대에 세워 배척하고 제거하려는 폭력성과 증오의 예언자적 열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에게 '선악과의 눈'은 정치적 대립의 장에서 나와 정견이 다른 이웃과 공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내 옆의 정치적 이웃을 원수로 생각하고 배척하는 '반(反) 이웃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3. 정치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두 가지 눈 ② - '제6계명의 눈'과 정치적 민주주의

가. '살인하지 말라'는 모세의 제6계명(출애굽기 20:13)과 '타인을 라가(바보)라고 욕하지 말라(마태복음 5:22)'는 예수님 산상수훈의 제6계명 재해석을 합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생과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서로 해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한 우리들 중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하고 힘겨운 '인간의 자기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기사랑은 서로 경쟁하고 부딪치면서, 세상의 모든 폭력과 불의와 악과 인간의 슬픔과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적인 자기사랑의 충동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해치고, 집단적인 자기사랑의 충동은 '집단적으로' 다른 집단의 생명과 인생을 공격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자기사랑은 지역과 직장가 가정의 이웃 간에 일상적이고 생활적인 다툼과 폭력을 만들고, 국가적/민족적 자기사랑은 이웃하는 공동체 간에 격렬한 증오심과 전쟁을 일으켜 세상의 대규모 비극들을 만들어내며, 계층적인 자기사랑은 한 사회 내부의 집단적 이웃 간에, 보수와 진보 간에, 인종과 계층 간에, 당파적이고 정치적인 대립과 격돌과 지속적인 정치적 내전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집단적 자기사랑과 집단적 폭력성')

나.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는, 사회 내부의 집단적/계층적 자기사랑의 충동과 적대감의 총탄(bullet)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폭력적인 전쟁으로 나가지 않고, 투표지(ballot)로 상대방을 일정 기간만 제압하는 '평화적인 전쟁'에서 멈추게 하는 정치적 제도입니다. 선거에 졌을 때에는 매우 분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4-5년 뒤에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전쟁이되 (욕만 죽어라고 하고) 사람을 직접

6) 누가복음 6:42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外飾)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죽이지는 않는 평화적인 전쟁(Peaceful War)'을 발명해 낸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제6계명의 적극적 실천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정치적)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정치적) 원수를 덜 미워하고 견디며 함께 살아가는 것'까지는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이중계명의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정치적 민주주의는 산상수훈의 팔복(八福) 중 하나인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Peacemaker)'⁸⁾로서, 기독교 신앙의 열렬한 박수와 지지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제6계명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처방')

4. 전광훈 사태의 원인 ① - '정치적 선악과(善惡果)'와 기독교의 탈선

가. 세상에는 절반의 보수주의자들과 절반의 진보주의자들이 함께 삽니다.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것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의 주관과 성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이익과 관점이지 절대적인 선과 악이 아닙니다. 보수에도 일리가 있고 진보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보수에도 잘못이 있고 진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를 절대선과 절대악으로 나누고 상대 진영을 제거하려고 드는 것은 사람이 '정치적 선악과'를 먹은 탓입니다.

나. 기독교인들도 평균적으로 절반은 정치적 보수주의자이고 절반은 정치적 진보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세상의 진보주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수주의에도 들어있고 진보주의에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와 「양자 간의 제대로 된 싸움과 협력」을 원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보수나 정치적 진보 중의 하나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선악과'와 '신앙적 선악과'를 함께 먹은 합병증상입니다.

다. 기독교인들 각자에게는 자기의 이익과 관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를 지지할 자유도 있고, 진보주의를 지지할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계명은 사람이 정치와 이념의 영역에서 「극우의 자리에 앉아서 진보와 좌파 모두를 악하다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 것」과 「극좌의 자리에 앉아서 보수와 우파 전부를 악인으로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나의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고 존중받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이웃사랑이자(마가복음 12:31),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기를 원하듯

7) 마태복음 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8) 마태복음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황금률(golden rule)'입니다(마태복음 7:12).

라. 우리가 참여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줄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없으면 세상은 더욱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곳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정치적 원수를 건디고 정치적 이웃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정치적 이웃사랑의 발명품이자, 사람을 죽이고 해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제6계명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커다란 신앙적 전진으로서,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 적극 참가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 전광훈 사태의 본질은, '정치적 선악과(善惡果)를 과다복용한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탈산'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현실에서,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는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기는 할지언정 배척과 제거의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합리적 보수와 극우, 합리적 진보와 극좌 간의 경계가 애매하고, 많은 경우 그 경계선에서 섞인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극우와 합리적 보수, 극좌와 합리적 진보 간의 경계는 성경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는가 아닌가?' 라는 정치적 선악과의 복용 여부로 분별될 수 있습니다.

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웃을 제거하지 말고 공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더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¹⁰⁾은 꿀보기도 싫고 얘기를 듣기도 싫은 '정치적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극단적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자」는 '욕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의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5. 전광훈 사태의 원인 ②

- '집단적 자기사랑의 기독교'와 '집단적 자기사랑의 극우주의' 간의 정치적·영적 동맹

가. 문제는 이러한 기독교와 정치적 극우의 동맹이라는 정치적, 영적 스캔들이 한국의 전광훈 사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사태에서도 더욱 완강하게 발생,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와 정치적 극우의 동맹이라는

9) 레위기 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0) 마태복음 5:43-44 “43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치적·영적 스캔들이 발생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들을 들 수 있겠으나,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는 사람들의 사적 욕망에 압도되어 '자기사랑의 기독교'에 빠진 '기독교 신앙의 왜곡(歪曲)'으로 인한 것입니다.

나. 세상 속의 인간은 '자기사랑'으로 움직이지만,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부인(自己否認)'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개인주의적 '자기사랑'을 기도와 예배와 교회와 신앙 속에 끌고 들어옵니다. 그 결과 심하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자기부인"조차도 끊임없이 신자들의 '개인적 자기사랑'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사랑'의 기독교, 자기부인에 대한 부담감과 긴장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자기사랑'의 이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다. '자기사랑의 기독교'가 '개인적 차원'에서 전개되면 개인주의에 대한 이상숭배, 성공주의, 성장주의에 대한 이상숭배, 개인적인 기복주의 신앙으로 비교적 온건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자기사랑의 기독교'가 '집단적 차원'으로 전개되면 금방 '집단주의적 자기사랑'의 양상인 국가주의 이상숭배, 반공주의 이상숭배, 인종주의 이상숭배의 극렬한 폭력성과 결합됩니다.

2017년 한국의 탄핵반대 집회와 2019-2020년 전광훈 사태에서 나타난 '태극기와 십자가의 동맹'은 '집단적 자기사랑의 기독교'와 '집단적 자기사랑의 국가주의'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이고도 논리적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사태에서 나타난 기독교인들의 반기독교적 투표는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White Evangelicals)의 집단적 자기사랑'이 트럼프로 대표되는 '백인 민족주의(White Nationalism)의 집단적 자기사랑'과 결합한 일로서 이 역시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자기사랑의 기독교'와 '자기사랑의 극우주의'는 '자기사랑'이라는 핵심적 교집합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질상으로도 비슷하고 심리적으로도 친근하고 현실적으로도 이해관계가 서로 합쳐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 '자기사랑의 기독교'는 두 가지 방향에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위험하게 합니다. 하나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사랑의 기독교'가 기독교 자체를 어지럽히고 망치는 이유를 봅니다. 세상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자기부인에 대한 부담과 긴장을 잃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자기사랑에만 매달리면 기독교 신앙은 그 핵

심을 잃고 더 이상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한 예수를 믿는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이 경우의 십자가는 자기부인의 상징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자기사랑의 상징적 부적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기사랑의 기독교'가 세상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어지럽히고 위험에 빠뜨리는 이유를 봅니다. 세상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인 '자기사랑의 대원칙' 위에 서, 서로 다른 '집단적 자기사랑'과 '집단적 자기사랑'이 서로 다투는 제도의 틀(rule of game)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집단적인 자기사랑 간의 충돌로 세상이 인생의 지옥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통한 평화법치주의에 의한 권력의 제한·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한 타협 등 자기사랑의 폭주를 막기 위한 '집단적 자기부인(自己否認)의 제도'들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극우적 자기사랑'의 위험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자기사랑'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제도의 자기부인 장치 일체를 부정하고 왕정과 파시즘적 독재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마. '자기사랑의 기독교'는 '극우적 자기사랑'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자기부인'의 필요성과 기능을 알지 못하거나 망각하기 때문에, '자기사랑의 기독교'가 '극우적 자기사랑'과 동맹관계를 맺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민주주의를 해치고 이웃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 서게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안전과 위험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욕망만을 추구하다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한국의 개신교회 전체를 무분별한 사회적 위험세력으로 전락시킨 전광훈 사태의 본질입니다.

자기사랑의 기독교가 극우주의와 정치적, 영적으로 결합하는 동맹관계는 민주주의와 기독교 양자 모두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자기사랑의 기독교의 정치적 탈선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서' 기독교를 해치고,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공격하여' 민주주의를 해칩니다. '자기사랑의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위하여)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하여) 회개하여야 합니다. 전광훈 사태로 인하여 '욕하는 기독교'의 허구적인 본색이 드러난 것은, 그로 인하여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적 평판이 크게 떨어지게 된 결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오히려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 고치지 않으면 망한다는 각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전광훈 사태를 통하여 '자기사랑의 기독교'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났으니, 이제 우리는 '자기부인의 기독교'를 다시 배우고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고치고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이 진지하고 성실한 기독시민으로서 함께 구체적인 답을 찾고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